

T. Malthus

2025.05.30.

4. 인구론

- ① 인구론 1판의 두 개의 지배적인 주제
- ② 개혁가들이 자본주의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부유한 소유자와 가난한 노동자라는 **현재의 계급 구조는 필연적으로 다시 출현할 것**

- ③ **끔찍한 빈곤과 고통은 모든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피할 길 없이 당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

② 인구론의 주된 논지

- ④ 맬서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추동하는 동기는 성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며, 이 욕망은 결코 포만상태가 되도록 충족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음. 이 욕망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보았음.

"인구는 억제되지 않는다면 25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는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인다고 주장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④ **식량의 양으로 인구증가 억제**

- **아주 최상의 상태라고 해도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할 뿐임.**
- 만약 다른 억제 요인이 없다면 인구 증가율은 결국에는 기아를 통해 식량 생산 증가 비율의 최대수준으로 제한될 것임.

⑤ 인구증가 억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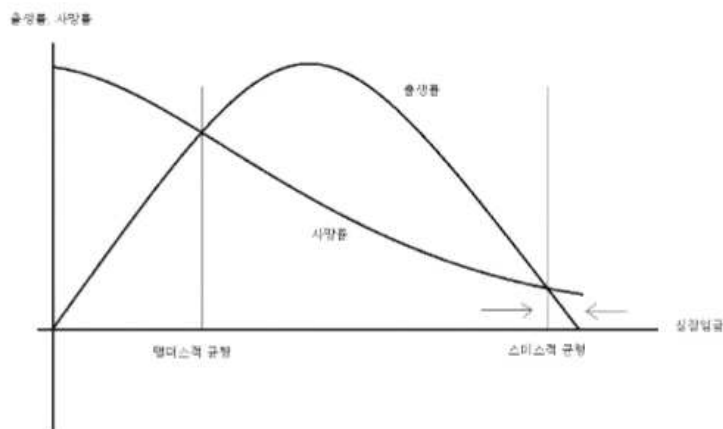
- **예방적인(preventive) 것과 현실에 실재하는(positive) 것 두 가지로 분류**
- > **이는 첫 번째 분류체계를 의미함.**
- **예방적 억제 요인 : 출생률을 낮추는 것 (산아제한, 영아살해 등)**
- **현실에 실재하는 억제요인 : 사망률을 높이는 것 (기아, 빈곤, 전쟁, 전염병 등)**

→ 두 번째 분류체계는 규범적 부분과 관련됨.

"만약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부와 소득이 증가하면 대다수는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반응할 것이며, 그 결과 이들 모두가 최소한의 생계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고, 오로지 도덕적인 미덕을 갖춘 이들만 이러한 운명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맬서스의 이론에서 부자와 빈자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높은 도덕적 인격을 갖춘 반면 후자는 도덕적으로 저열하다는데 있음. 이에 **맬서스는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모든 계획을 거부하였음**. 즉, 스핀햄랜드 법을 통한 빈민구호는 쓸모없는 일이라 비판함.

㉔ 맬서스와 리카도, 그리고 스미스의 주장의 비교 (인구학적 균형)



→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은 의학발전과 관련됨.

→ 맬서스 균형점

: 출생률 > 사망률 이면, 인구가 많아지고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식량부족 발생 및 노동공급이 많아져 임금의 감소

: 출생률 < 사망률 이면, 사망자가 많아 노동공급이 적어져 임금이 오름. 결국 균형으로 회귀

→ 스미스 균형점

: 출생률 > 사망률 이면,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분업이 발전, 노동생산성 증대, 경제성

장, 실질 임금의 증가로 이어짐.

: 출생률 < 사망률 이면,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여 임금이 하락함.

→ 두 점 모두 균형이지만, 리카도는 맬서스에 가까운 의견

5. 공급과잉논쟁 (상품과잉 논쟁, Glut Controversy)

① 과소소비이론(underconsumption theories)

: 맬서스는 거시차원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불황에 빠질 수 있음을 주장

② 과잉생산

: 경제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과잉생산을 의미

: 유효수요의 부족을 의미. 상품시장에서의 과잉생산은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실업을 의미.

※ 맬서스뿐 아니라 리카도와 고전파 전반, 그리고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특정 부문이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과잉/과소 생산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음. 같은 이유로 고전파도 부분적인 과잉생산 혹은 마찰적 실업을 인정하였음.

: 스미스의 가격론에 대해 맬서스가 제한을 가했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힘이 자동적으로 시장가격을 자연가격 수준까지 밀어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에 따르면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맺는 특별한 혹은 우발적인 관계로 결정” 됨.

: 소득을 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비할 상품을 획득하는 데 쓰는 것과 둘째 자본으로 축적될 상품을 획득하는 데 쓰는 것이 해당됨.

: 맬서스는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유효수요 부족을 꼽았으며, 수요부족이 발생하는 원천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3대 계급 각각의 지출패턴을 분석함.

: 맬서스는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유효수요 부족을 꼽았으며, 수요부족이 발생하는 원천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3대 계급 각각의 지

출패턴을 분석함.

※ 3대 계급의 지출패턴

- ㉠ 노동자 : 가난하기 때문에 소득전체를 생계수단을 사는데 지출함.
- ㉡ 자본가 : 자본을 축적하려는 욕망에 추동되는 존재인데다가 이윤의 많은 액수를 소비 또는 개인적 서비스에 지출할 시간도 없고 그럴 성향이 아님.
- ㉢ 지주 : 여가 시간이 차고 넘치는 신사들. 지대로 들어오는 확실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소득 모두를 집을 쾌적하게 하고 하인을 거느리고 예술, 대학, 그 밖의 문화기관을 후원하는데 씀.

→ 3대 계급 각각은 소득 전부를 지출하려 함. 하지만 자본가는 이윤 전부를 새로운 자본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려 함. **맬서스의 생각으로는 자본주의가 진보하면서 자본가가 너무 많은 소득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이들은 저축하는 돈 전부를 자본에 투자하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거둘 수 없기에 모두 투자하지 못함.**

③ 과잉생산 완화 방법

: 새로운 욕구의 창출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계급이나 계층의 역할을 강조함. **지주**가 이에 속하며, 이는 곡물법에 대한 방어로 이어짐.

: 맬서스는 지주 스스로가 과잉의 물질적 생산물 모두를 소비하지 못한다고 봄. 그는 지주가 수많은 하인과 그 밖의 비생산적 노동자, 즉 개인적 서비스의 공급자를 고용하며 하인과 비생산적 노동자가 제조업에서 생산한 물질적 생산물에 자신의 소득을 지출하는 점을 주목함. 그러므로 이들 집단이 커지면 총수요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았음.

④ 리카도 vs. 맬서스

- **리카도** : 자본주의의 침체가 곡물가격과 지대의 상승으로 인한 이윤압박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곡물 수입을 자유화하기 위해 곡물법 폐지를 주장.
- **맬서스** : 자본주의의 침체가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며 지주계급을 옹호하고 곡물법 폐지에 유보를 표시함.

J. B. Say

2025.05.30.

1. 생애 (1767~1832)

- 1767년 프랑스 리옹 출신
- 1792년 혁명군에 자원복무, 이후 상업 업무와 잡지사의 편집인으로 근무
- 생계유지를 위해 방직공장을 공동경영
- 1815년 나폴레옹의 실각 후 정부의 위촉으로 연구 활동 목적으로 영국으로 떠남.
1819년 공예학교에서 "산업경제" 강의 담당
- 1830년 프랑스에서 대학교수로 초빙, 이 시기 맬서스와 많은 서신을 교환
- 1832년 프랑스에서 사망

2. 주요 저작

- 정치경제학 개론(*Traité d'économie politique*, 1803) 발간
→ 모든 상품이 생산되면 스스로 판매처를 찾게 되어 있음을 주장
-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맬서스와의 서간문(*Lettres à M. Malthus sur différents sujet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20)

3. 사상과 이론

① 기본 사상

- 스미스 사상의 지지자
- **간단명료하면서 알기 쉬운 서술방법**으로 경제학을 전파시키는 데 큰 역할
- 당시 경제정책과 경제사에서 명확한 사례를 제시
-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기본 입장 (그의 주된 관심대상은 자율적인 개인)

② 정치경제학개론

- 세는 방법론적 사고와 철학적 입장을 서문에서 명확히 밝히며, 스미스를 지지하였으나 맹목적으로 무비판하지는 않았음.

- 세는 모든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는 오직 물질적 재화에서 형성된다는 스미스 견해에는 반대함. **세는 오로지 효용만이 가치를 창조한다고 주장.** 분배론의 부재와 소비와 투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도 지적.

- 리카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사고와 제약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은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비판

③ Say' Law (판로의 법칙, *Law of markets or outlets*)

- 정치경제학개론 제 15장에서 판로이론을 전개

→ 세는 맬서스와의 긴 서신을 통해 시장 전체가 공급과잉이나 불황에 시달려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변동이 나타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았음.

→ 세에게 시장경제란 모든 생산자가 특정한 작업에 특화되어 각각의 생산물을 교환하는 경제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산물을 원하여 그것과 **교환할 무언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면** 절대로 생산 활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

"**상품의 판매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아닌 생산이다.....따라서 한 상품의 생산 그 자체는 다른 상품의 판매경로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산물이 판매되는 순간, 그 판매대금은 다시 소득으로 분해되어 그 크기만큼의 수요를 창출한다** (*Products are paid for by products*)."

- **생산이 생산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경제를 설정함.**
- 생산은 생산의 출구를 열어준다고 주장. 개별 상품의 품귀나 과잉 상태는 가격 변화 혹은 이윤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의 자본가의 이동을 통해서 제거 될 것.
- 그 결과 총수요와 총공급의 일치가 보장되고 각각의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같게 될 것. 따라서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을 창출함.
- 고전파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수요차원이 아닌 **생산능력이나 공급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음.

- 시장을 바라보는 두 전통
 - ㉠ 시장은 본래적으로 안정적 : 고전파 일반
 - ㉡ 시장은 불안정적 : 맬서스, 케인즈, 맑스

J. S. Mill

2025.05.30.

1. 생애(1806년~1873년)

- James Mill의 아홉 자녀 중 장남
- Greek & 산술(3세), Latin(8세), 기하 물리 화학(10세 이전), 논리학(12세 이전), 경제학(13세)
- James Mill은 Bentham 등의 associationist psychology에 따라 밀을 교육
 - 1820년 14세 때 벤담의 동생에 끌려 1년 간 프랑스에서 머물며, 생시몽을 비롯한 프랑스 사교계와 어울리고 프랑스인의 사고방식을 배움.
- 모든 사물을 지적으로만 수용, "**생각하는 기계**"가 되도록 교육받음.
- 1826년 우울증을 겪기 시작하였고 1828년 워즈워드의 시를 처음 읽을 때까지 감성적 기쁨, 인생 등이 무엇인지 모름.
 - 1826년 **정신적 위기**를 거치며 자서전에서 "아무런 생에 대한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기술함.
 - 어릴 때부터 큰 기쁨을 얻는 상상적 예술은 음악이 유일한 것으로 보았음.
 - 워즈워드의 시를 처음 읽은 때를 내 생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함. 이 시를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남.
 - 정신적 위기 극복이후 밀의 인간관과 방법론은 벤담주의의 수정으로 향함.
- 17세(1823년) 동인도 회사에 취직하여 1858년까지 근무, 만년에 하원의원(1865년), 3년 후 재선에 실패 후 정계에서 은퇴
 - 선거 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면서 부인 참정권을 주장하였음.
 - **여성 및 노동자 참정권, 비례대표제, 지자체 도입, 사형제도 폐지, 자유무역 등 주창**
- James Mill 1836년 사망

- **Harriet Taylor**(1807~1858)를 1830년 첫 대면, 20년 동안 친구로 교제 후 결혼함. 그녀의 남편인 John Taylor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1851년 결혼하였음. 테일러는 1858년 아비뇽으로의 여행 중 감기에 의한 사망

"나의 정신적 발달의 제 3기라고 해도 좋을 시기에 나의 정신적 발달은 그녀의 정신 발달과 나란히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나의 견해는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졌으며,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그전에 이해했던 것을 더욱 철저하게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 1873년 사망(67세)

2. 저작

- 1844년 경제학의 몇 가지 미해결 문제에 대한 소론,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 1848년 정치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 "**고전파 경제학은 이미 완성. 따라서 새로운 Theoretical contribution은 없고 단지 그것의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만 정리한 것에 불과**"
 - 그러나 Marshall의 Principle 이전까지 **표준적 교과서**
- 1843년 *A system of Logic*
 - 밀은 사회과학의 올바른 방법론은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를 뚜렷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논리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에 나온 것이 논리학 체계임.
- 1859년 *On Liberty*
 - 동인도 회사를 그만 두기 전 2년 동안 Taylor 부인과 공동으로 작업.
- 1861년 *Autobiography*
- 1861년 "여성의 해방"

3. 밀의 사상

- 초기에는 벤담 식의 공리주의를 주장. 이후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하였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주장함.
- 후기에는 생시몽주의(공상적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였음.

① 절충주의자 : open-minded

- ☞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 집필 시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념적으로도 자본주의에 사회주의를 가미하고자 노력함.
- ☞ 밀의 절충적인 태도는 고전학파의 기존 이론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고전학파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② 진보주의(개량주의)

- ☞ 밀은 거의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소수의 자본가계급의 손에 집중되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함.
- ☞ 밀은 극심한 빈부의 차이 때문에 당대의 자본주의적 계급 구조를 도덕적으로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생각함.

"이렇게 인류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두 개의 세습적 계급으로 나뉜 상태가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원리 중에서, p761.)